

중국갑오전쟁박물관에서 다시 보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의 개념화를 위하여*

정근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사회학과

1894년 한국에서 발생한 민족사적 대사건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지역사의 대사건으로서의 청일전쟁을 재현하는 시각은 양자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입장과 하나의 통합된 사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한국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중국 웨이하이(威海)의 갑오전쟁박물관은 모두 전자의 시각에서 전시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쟁기념관도 청일전쟁을 한국인이 겪은 전쟁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의 해체기에 발생한 두 사건은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과 조선의 청에 대한 원병 요청 그리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 작전에서의 일본의 지휘권을 매개로 하여, 동심원을 그리는 하나의 지역전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청일전쟁은 조선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전쟁으로 재규정되어야 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청일전쟁에 관한 전시를 좀더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동북아시아전쟁, 전쟁박물관, 시각적 재현

I. ‘갑오년’, 그 특별한 의미를 찾아서

2014년은 갑오년이다. 한국인들에게 갑오년은 압도적으로 120년 전인 1894년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 해에 일어났던 농민혁명 때문이다. 이 대사건은 발발 당시에는 동학란으로 불렸지만, 근래에는 발생한 해에 초점을 맞추어 ‘갑오’ 농민혁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동학’ 농민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명칭의 혼란만큼이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져 왔고, 또한 사건의 전체상 또한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그때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갔던 농민군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¹ 청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955).

¹ 동학농민군의 희생자는 5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다양한 설이 있다. 신영우(2009)는 동학농민군

과 일본의 전쟁의 와중에서 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중국인들에게도 갑오년은 매우 특별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 사건은 갑오중일전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중국의 웨이하이(威海)에 있다. 그것의 명칭은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이다. 중국 정부는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사건을 계기로 항일전쟁과 관련된 지방 곳곳에 박물관을 세우고 역사 교육을 시작했는데, 뤼순의 일아(日俄)감옥 구지(舊址)박물관, 셴양(瀋陽)의 9·18역사박물관, 베이징(北京) 교외 노구교의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난징(南京)의 난징대학살박물관, 하얼빈의 7·31기념관 등과 함께 이 갑오전쟁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1894년이 한국인들 못지않게 중국인들에게도 뼈아픈 치욕의 해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족사적 대사건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지역사의 대사건으로서의 청일전쟁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의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입장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자가 주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일전쟁의 진행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서울의 전쟁기념관조차 청일전쟁을 독립적인 전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왜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었는가?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은 동심원을 그리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혹시 청일전쟁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치 한국과 무관한 사건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글은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산둥 지역을 답사하면서 특별히 방문했던 웨이하이의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의 전시를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한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생각하면서 전라도나 충청도 농촌만이 아니라 평양이나 압록강 어귀, 나아가 중국의 뤼순(旅順)이나 웨이하이, 나아가 일본의 시모노세키까지를 굽어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전시가 바뀌어야

의 희생자 규모를 후비보병 제19대대에 의한 전사자가 2,488명에 우금지전투 희생자들(수천 명)을 더한 수, 후비보병 제6연대 제2대대에 의한 전사자가 116명, 이외에 포로들 273명에 수백 명 등을 더한 수로 추산하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다는 생각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한국의 공주나 전주, 김제, 정읍, 장성 그리고 장흥 등지에 산재해 있는 갑오농민혁명의 기억과 그 기념물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공간적 맥락을 재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관한 기억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재편되었는가를 탐구해야 한다. 기념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도시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전쟁 유적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의미망으로 포착될 때, 각각의 파편화된 기억의 장소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기부터 이미 한국사는 동아시아 지역사나 세계사의 일부였다. 한편으로는 1894년 전라도의 한 농촌에서 발생한 민중들의 저항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대사건으로 발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질서가 일본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교체되는 구조적 힘이 19세기 후반의 동북아시아를 관통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웨이하이의 갑오전쟁기념관의 형성 과정과 전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잘 결합되고 연속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전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시각과 한계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연혁과 전시

1894년 갑오년에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고, 이후 조선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함에 따라 농민군들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그 실상에 관한 연구도 매우 부진했다. 이 사건은 국내적으로는 ‘동학란’으로, 국제적으로

는 ‘청일전쟁’², 일본인들은 ‘일청전쟁’으로 명명하였다. 해방 이후 이 사건은 ‘농민혁명’으로 재규정되었으나 ‘청일전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치 조선과는 무관한 전쟁으로, 또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별개의 독립된 사건인 것처럼 인식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한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은 100주년을 앞둔 1990년대 초반에 혁명의 주된 근거지였던 전북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이 혁명이나 전쟁에 관한 기억의 문제도 학문적 관심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이나 기념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박명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루어진 현지 조사와 학문적 관심에 기초하여 당시까지의 이 사건에 대한 기념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박명규, 1997).³ 이때까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문적 작업의 중심은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사실 규명이었고, 기념사업은 기념물 건립에 그치고 있지, 종합적인 서사를 포함하는 기념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병학(2014)은 1894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크게 4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95~1910년 기간으로 조선 정부와 유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으로 치부된 채, 반농민군 측 입장에서 이루어진 기념사업이다. 두 번째 시기는 일제식민지 시기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으로 동학농민혁명이 민족적 거사가 아니라 일개 종교단체의 반란 또는 고부 지방 수령의 학정에 따른 민란으로 의미가 축소된 시기다. 이 시기는 정치적 격동으로 기념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1954년 전봉준 장군 단비가 세워진 것이 유일한 기념사업이었다.

² 러시아 외교관 제노네 볼피첼리(Zenone Volpicelli)는 놀랍게도 전쟁 종료 후 1년 만에 청일전쟁에 관한 책을 써서 런던에서 출간했다. 그는 책의 제목을 『청일전쟁(The China-Japan War)』으로 명명했다(볼피첼리, 유영분 역, 2009). 그는 이 책에서 동학농민군의 동향이나 일본군의 농민군 학살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농민군 동향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백산을 산약요새로 오인하는 등 오류가 많지만(볼피첼리, 유영분 역, 2009: 84), 청의 육군과 해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볼피첼리는 청일전쟁을 과거와 현재의 전쟁이자 서양 문명과 낡은 동양 문명의 산발적인 잔존물 간의 전쟁으로 파악했다(볼피첼리, 유영분 역, 2009: 23).

³ 박명규는 여기에서 1910년 이전의 유교적 충절론의 상징화, 일제하의 기념의 부재, 1961년 이후 1979년까지의 혁명의 상징성의 정치적 이용,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상징적 자원의 민주적 해석과 억압, 1987년 이후 1996년까지의 민중의식, 지방의식의 확대와 역사의 대중화로 규정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61년부터 1992년까지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가리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1963년 10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국가재건회의 의장 박정희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정읍 황토재에 세웠다. 그의 선조가 동학 접주였기 때문에 그는 동학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황토현전적지 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기념관을 설치하였다. 이 기념관은 백산봉기를 본격적인 혁명의 출발로 삼고 있으며, 동학군의 중요 전투 장면을 그림으로 만들어 전시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창립된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것이 지닌 민중적 변혁 지향성이 부각된 시기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간 기념사업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기존의 동학혁명기념탑 주변에 1999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착공하였다. 이 기념관은 2004년 개관하였고, 같은 해 제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2003년에 개관한 전주 역사박물관에도 소규모의 동학농민혁명관이 있지만 주제 박물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있는 역사박물관 중에서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전시하는 대표적인 기념관이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다. 이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1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1894년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서사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기념관의 전시실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19세기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층은 동학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의 서사는 농민혁명의 배경과 조직, 혁명의 시작과 끝, 농민항쟁 그 이후로 구분된다. 각각의 제목은 ‘동학농민혁명을 향하여’, ‘고부에서 전주성까지’, ‘무르익은 혁명의 희망’, ‘폭풍우 몰아치는 조선 산하’, ‘일본군에 가로막힌 꿈’, ‘끝나지 않는 함성’, ‘희망’, ‘농민군들이 꿈꾼 세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동학의 창도와 공인 운동, 동학의 경전, 농민혁명 주체 세력의 형성이 언급되고, 농민혁명의 서사로 사발통문과 고부농민봉기, 무장기포와 백산

봉기, 황토재전투와 황룡촌전투, 전주성 점령과 완산전투, 폐정 개혁안과 전주 화약, 집강소 설치를 다룬다. 이어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삼남 각지의 척왜봉기라는 제목 하에 재봉기 결정과 준비, 퇴각 그리고 해산, 농민군 지도자의 희생과 일본군의 토벌, 최후의 항쟁을 다루고 있다. 전시의 후반부에 전봉준 공초의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농민혁명 이후’라는 제목의 전시에서는 일본군 5사단이 평양을 점령하여 선화당을 사령부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청군 포로를 감시하고 있는 조선인 병사의 사진이 함께 있다. 마지막으로 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전시하고 있다. 이 의미는 첫째, 민중의 역사적 주체화, 둘째, 사회개혁 지향성, 셋째, 반침략 반외세를 통한 근대민족운동, 넷째,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섯째, 근대 민족민주통일운동의 시발점으로서의 자리매김 등이다.

이 기념관의 전시를 보면 청일전쟁을 한 장의 패널로 다루고 있으며, 평양의 사진을 두 점 보여주는 것 이외에 일본군의 압록강 도하 후 요동과 산둥에서 전개된 청일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잇는 고리를 설명하거나 일본군에 의한 조선 정부군의 지휘에 대한 설명도 취약하다. 이것은 청일전쟁이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여 발생했고, 그 전쟁의 결과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대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의 외부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는 19세기 동아시아에 서구 열강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제국주의관’이 있었는데, 2014년 초에 이를 어린이 전시관으로 바뀌었다.

이런 인식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다. 수나 당과 고구려와의 전쟁은 전시하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전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사를 세계사적 또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보지 않는 맹점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이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의 일차적 원인은 전쟁의 명칭에 있는 듯하다.

2. 동심원으로서의 혁명과 전쟁

오늘날 한국에서 청일전쟁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도들은 동학농민군과 일



출처: 『두산백과』, 2014.

그림 1 청일전쟁 전계도

본군과의 전투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현상의 결과이자 동시에 이를 재생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2014년 『두산백과』에 나타난 청일전쟁의 지도는 그림 1과 같다.

이 청일전쟁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도는 1894년 7월 25일 풍도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양과 압록강을 거쳐 중국의 요동(遼東)과 산둥(山東)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가고,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동학농민군의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의 동향은 보여주지 않는다.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의 전투와 청나라와의 전투를 동시에 진행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잇는 고리는 국제 사회에서의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과 조선의 청에 대한 원병 요청, 그리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 작전에서의 일본의 지휘권 문제다. 왜 조선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했으며, 일본군은 어떤 이유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어 전쟁을 도발했는가?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토벌할 때 조선 정부군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 대사건에 대한 기억을 틀지워주는 핵심적 프레임이 될 필요가 있다.

이 혁명과 전쟁이 얽힌 대사건은 동아시아 조공·책봉 체제가 근대적인 조약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즉 중국 중심의 질서가 서구의 침입을 매개로 하여 일본 중심의 질서로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통적인 왕조국가가 근대적인 민족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나 1882년 임오군란은 이런 체제의 변동과 유관한 사건들이었다. 강화도조약 체결 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다. 그러나 임오군란은 청의 종주권 문제를 관념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 흥미롭게도 조선의 보수적 지배층은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발생할 때 청의 원병을 유력한 난국 해결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역사적 아비투스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구식 군대의 반란을 청의 원병에 기대어 진압했으며, 청군은 조선에 진주하면서 조선과의 전통적인 사대의 관계를 근대적인 ‘속국’ 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조약 체제의 이행은 1840년 영국과 중국 간의 제1차 아편전쟁에 의해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특징인 불평등 조약 체제는 1842년 난징조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⁴ 이어 1858년 텐진(天津)조약과 아이훈조약, 1860년 베이징조약, 1881년 일리조약 등이 모두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 체제는 1850년대 서구와 일본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1854년 미국과 류큐의 화친조약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서구와의 불평등 관계를 청산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하여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선회한다.

⁴ 난징조약의 후속으로 맺어진 후먼조약(1843, 영국), 왕샤조약(1844, 미국), 황푸조약(1844, 미국) 등이 모두 불평등 조약이다.

동아시아 내에서의 근대적 관계의 출발은 1871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일청수호조규이다. 이 조규는 양국의 대등한 관계를 상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과 서구 여러 나라 간의 불평등 조약을 보면서, 조선을 매개로 하여 청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석완(2006)은 1871년부터 1894년까지 일본의 외교는 이 수호조규의 개정을 통해 대등하지 않은 관계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청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체제에 대한 도전은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1874년 ‘제2차 사이공 조약’이었다. 청은 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고, 1885년 6월 텐진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류큐(琉球) 문제였다. 17세기 초부터 중국 및 일본에 ‘양속’되었던 류큐에서 청일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은 1874년 일본의 대만 출병이었다. 표류한 류큐인을 대만인들이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군사력으로 청을 압박하였다. 1875년 일본은 이른바 마쓰다 10개 조항을 통해 류큐의 중국에 대한 책봉·조공을 금지시켰다. 1879년에는 류큐를 오키나와현으로 만들어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청은 일본을 가상 적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독립국으로서의 류큐와 화친조약을 맺었던 미국은 이의 문제를 인식하고,⁵ 그랜트 전 대통령이 청으로 가서 류큐를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중부 오키나와의 독립을 유지할 것을 리홍장(李鴻章)에게 제안하였다. 이후 미국은 일본과 협상하여 오키나와를 2개로 분할하는 안을 1880년에 마련하였으나 리홍장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류큐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방치했다.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1875년 강화도를 침략하여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후 이듬해 강화도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의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다. 이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과 동등권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의 자주는 청에 대한 것으로, 청도 속방은 내치와 외교의 자주권을 갖는다는 해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⁵ 류큐는 1854년 미국과 조약을 맺은 후, 1855년 프랑스, 1859년 네덜란드, 1860년 이탈리아와의 수호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였다.

(조병한, 2006: 288).⁶

한국 역사학계는 대체로 이른바 중화체제 하에서의 조선의 지위에 대하여 조공·책봉 관계에도 불구하고 독립국이었음을 주장한다.⁷ 1876년부터 청일전쟁이 종료되는 1895년까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제적 쟁점이었음이 분명하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가 청에 원병을 청하여 진압하였는데, 일단 청의 군대가 진주하면서 조선의 명실상부한 독립국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홍장은 조선에 파병한 군사 3,000명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속방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조청상민수력무역장정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⁸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 개화파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다. 1884년 5월, 프랑스와의 전쟁 조짐에 따라 청의 군사 1,500명이 조선에서 철수하자, 급진 개화파는 12월에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이 때의 혁신 정강에는 조공하는 허례의 폐지, 문벌 폐지와 인민 평등의 권을 제정, 관직의 능력주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실패했다.

일본은 1885년 이노우에(井上馨)의 지휘로 2개 대대 병력을 서울에 주둔시켰다.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과의 충돌이 우려되자, 일본은 이토(伊藤博文)를 전권대사로 텐진에 보내 직예총독(直隸總督) 리홍장과 협상하여, 이해 4월 18일 전문 3개조의 텐진조약을 맺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 조선에서 철병할 것, ② 조선 국왕에게 권해 조선의 자위군을 양성토록 하되, 훈련교관은 청·일 양 당사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초빙토록 할 것, ③ 앞으로 조선에서 어떤 변란이나 중요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두 나라 또는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연락하고 사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철병할 것 등이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의 우월권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⁶ 조병한은 1874년 일본이 일으킨 대만 출병 사건은 미국이 고취한 것으로, 여기에서 일본은 중국 해군력의 취약함을 간파하고, 근대적 국제법 질서를 보여주는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류큐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강화했다. 이런 경험을 조선 개항을 둘러싼 청일 간 협상에서도 활용하여 조선의 '지주독립국'임을 규정하였다고 보았다(2006: 299).

⁷ 이 시기 조선과 청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흐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은정태(2009) 참조.

⁸ 이것의 전문에는 조선을 청의 속국이라고 명시했고, 외교 전반을 청에 문의하라고 주문하였다.

1885년부터 1894년 초까지 청일 양군 모두 조선에 진주하지 않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다시 이들을 조선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정부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에 원병을 요청하려는 움직임은 1893년 4월, 동학교도들의 보은집회에서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청은 1894년 5월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일본이 여러 경로로 청의 출병을 유도하거나 중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다이동양, 2009: 256-257, 270).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당시 병조판서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민영준은 홍계훈을 초토사로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하였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원세개(袁世凱)와의 협의 아래 청의 원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왕현종, 2009: 21-26).⁹ 조선 정부는 그것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했지만, 동학농민군이 5월 31일 전주성을 함락하자 민영준의 주도로 6월 3일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청은 1,500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청의 개입 명분은 ‘속방 보호’였다. 당시 리홍장의 조선 출병에 관한 정세 판단은 원세개의 보고와 주일 사신 왕봉조(汪鳳藻)의 보고에 근거하고 있었으며(다이동양 2009: 260-261), 청의 파병은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청은 6월 7일 일본의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에서 조선 정부가 자신에게 보낸 통지문의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질상 사악하고 욕심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동학교도 지도자 아래 여러 도시와 마을을 공격해 점령했고, 북쪽으로 진격하여 전주를 차지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군은 아직까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란이 계속 확산되어 장기간 지속된다면 중국에 큰 걱정을 끼칠 것입니다. 1882년과 1884년에 내부 소요로 곤란에 처했을 때도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중국군이 반란을 모두 진압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에 따라 이번 소요를 신속하게 진압할 상당수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군대의 철수를 요청할 것이며, 더 이상 주둔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의 장기간 해외 주둔에 따른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청은 여기에 덧붙

⁹ 은정태도 원세개가 조선 정부로 하여금 청에 원병을 청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고 있다(은정태, 2009: 93-94).

붙여 “조공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행에도 합치한다”고 밝히면서, “섭지초(葉志超) 장군이 선발대를 이끌고 즉각 조선의 전라도와 인천으로 진격하여 조공국의 평화회복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전문에 대하여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가 중국 특명전권공사에게 답을 하였는데, 이 전문에 따르면 텐진조약에 따라 중국이 조선에 출병하면서 보낸 통지문을 일본이 접수했고, 여기에서 조선이 청의 조공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이를 인정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대리공사 고무라(小村壽太郎)는 중국에 대해 “조선에서 일본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성격의 소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군을 파견한다고 알렸다.

청은 6월 9일 총리아문 명의로 일본 대리공사 고무라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조선의 청원에 따라 폭도를 진압하기 위한 원조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이 조치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조공국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해 온 관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유일한 목적이 조선 내 폭도 진압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귀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분명 조선 내 공사관과 영사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귀국의 어떤 군대도 조선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은 “양국 병사들이 도중에 마주치는 경우 언어와 군사적 관례의 차이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쟁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무라는 이에 대한 6월 12일의 통지문에서 다시 한 번 일본의 조선의 조공국 지위를 인정한 바 없고, 제물포조약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군은 엄격한 규율 아래에 있으므로 중국군과는 어떤 충돌도 야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이동양(戴東陽)은 속방 논쟁은 일본의 속임수였고,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의 청에 대한 정식 출병 요청이 있기 하루 전에 이미 조선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파병 규모도 청군보다 많았다고 본다(2009: 268-271). 리홍장은 조선이 일본에 파병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은 조선에 파병하지 않아야 하며, 파병하더라도 소규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다이동양, 2009: 273).

그러나 최근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은 텐진조약에 따른 통고 하루 전에 이미 군 병력을 출발시켰는데(戚其章, 2006: 20-34), 청은 이를 알지 못했다.

동학농민군이 6월 7일 정부군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자 청일 양군은 더 이상 조선에서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러나 일본군은 계속 증강되었다. 조선 정부는 물론이고 청도 일본에 철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은 일본군 철병을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조속한 난평정’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 6월 17일 원세개와 오토리(大鳥圭介) 간의 동시철병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오토리가 일본 정부의 진의를 파악한 한 후 철병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을 회피하였다.

일본은 중국 특명전권공사에게 6월 17일 통지문을 보내 청일 양국이 폭도 소요 진압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진압 후에는 조선의 국내 통치 개혁을 위한 연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은 6월 22일, 소요가 이미 진압되었으니 청일 양군 모두 철수하고, 조선의 개혁은 스스로에게 맡기고 청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곧바로 조선의 상황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한 태도는 조선에 대해 품고 있는 우정과 상호주의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중국 정부의 적대적인 관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에서의 군대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월 22일 일본 정부는 전쟁이 불가피하므로 개전 구실을 만들되 개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과, 조선 내정 개혁을 위해 조선 정부를 압박할 것을 결정하였다(다이동양, 2009: 320). 청의 리홍장은 위급한 사태를 모면하고자 서구 열강이 일본의 철병을 권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시기의 일본의 조선 정책은 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개편하여 일본 중심적 질서로 개편하는 것이었고,¹⁰ 이를 위하여 조선 중립화, 일본의 단독 보호, 청일 공동 관리안 등을 검토하였지만, 점차 단독 보호안을 채택해 가고 있었다. 일본은 청에 대한 선전포고 직전인 7월 16일, 영국과의 신통상항해

¹⁰ 1890년에 이르면 일본은 이익선과 주권선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서 조선을 이익선 안에 포함시켜 단독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비나타(大日方純夫, 2009)는 일본이 청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영국이 터키로부터 이집트를 분리시켜 이익을 관철해 간 사례에서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174쪽).

조약을 체결하여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고, 이를 청과의 관계 역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오늘날의 청일전쟁 연구는 당시 일본은 이미 전쟁 유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조선 정부 개혁안을 전쟁 개시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7월 23일 용산에 있던 일본군 1,000명은 조선군의 저항을 뚫고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였으며,¹¹ 25일에는 조선이 일본군에게 청의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고, 27일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군국기무처를 발족시켰다. 일본은 7월 30일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기존의 조청 관계를 폐기하도록 하였다(왕현중, 2009: 45-50).

청은 7월 21일부터 해군 병사 8,000명을 태운 증기선 11척을 아산과 압록강으로 나누어 파견했다. 일본군은 7월 23일 사세보항에서 아키츠시마와 요시노, 나니와 등 3척의 군함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25일 풍도에서 중국 전함 제원 및 광을함을 공격했고, 곧이어 조강호와 영국 상선 고승호가 나타나자 이를 공격하여 조강호를 나포하고 고승호는 침몰시켜 1,000명 이상의 선원이 희생되었다.

육상 전투는 성환과 소사에서 7월 28일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오시마가 지휘했고, 청군은 섭지초가 지휘했다. 그러나 청군은 풍도해전 패전으로 원병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후퇴하였고, 청군 일부가 접전하였으나 대패했다. 청군의 일부는 평양으로 후퇴했다. 성환전투 승리 후 일본군은 7월 31일 아산을 출발하여 8월 5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이후 청군을 쫓아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8월 1일 일본은 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 선전포고에는 “조선은 독립국가”이며, “일본은 조선에 대해 내정을 개혁하여 대내적으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선은 이미 그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의도를 훼방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은밀하면서도 교활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청도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은 과거 200여 년간 우리의 조공국”이었지만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아산 근처 해안에서 무방비 상태인 수송선에 포격을 가해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청은

¹¹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충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조일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항상 박애와 완전한 정도를 추구한 반면, 왜국은 국제법과 조약을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인내심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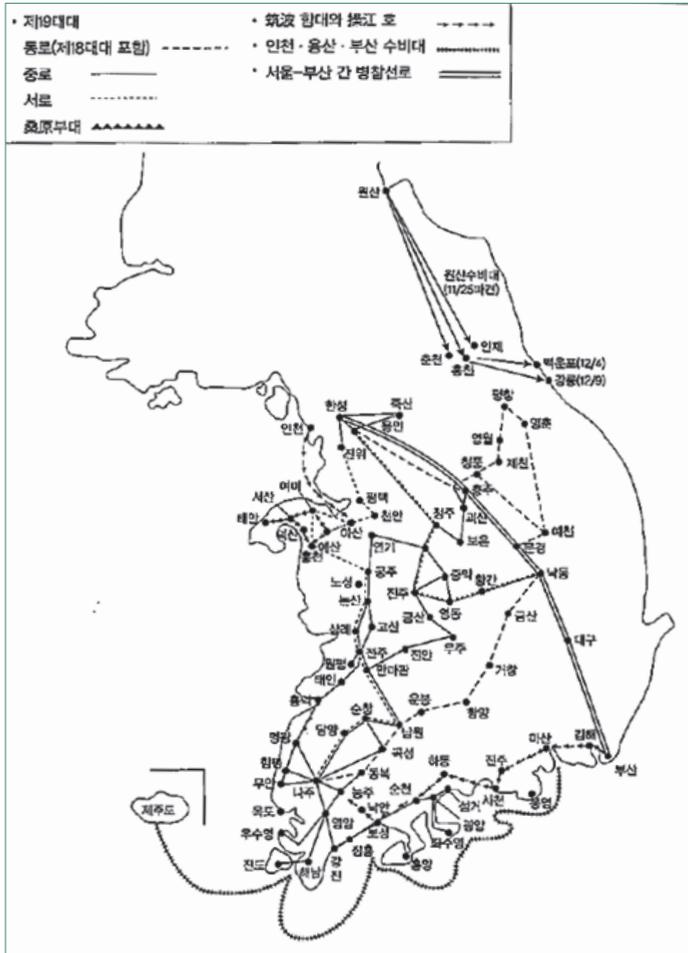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청에 대한 전쟁 준비는 6월 5일 대본영의 설치, 조선 병참화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7월 초에 군용전선 가설대를 부산과 인천에 파견하였고, 8월 16일 경부 간 군용전선을 거의 완성하였다(강효숙, 2009: 434). 일본은 조선에 전쟁 협조를 강요하여 8월 20일, 철도나 전신선의 이권을 제공하는 일조잡정합동조관(日朝暫定合同條款)을 체결하고, 8월 26일에는 청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조공수동맹을 비밀리에 맺었다(오비나타 스미오, 2009: 59).

8월 29일 상주 지역에서 농민군의 일본군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고, 9월부터 조선인들의 전신주 파괴 및 군용전선 절단 등의 저항이 발생하였다. 일본군은 이들을 강력히 탄압하여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조선 정부에 농민군 토벌을 요청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9월 15일 청의 군사 약 1만 3,000명이 지키는 평양을 일본군 혼성여단이 공격하여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162명 사망, 33명이 행방불명이었는데 비해 청군은 약 2,000명이 전사하고, 600명이 포로가 되었다. 일본군은 조선 병사를 자신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9월 17일 황해해전이 해양도에서 벌어졌다. 청 해군은 4척이 침몰하여, 1/3의 전력을 상실한 반면 이토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해군은 두 척이 손상을 입었다.

한편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이후 각 지역에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청일 간의 평양전투 이후, 재봉기할 것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9월 23일 남원대회가 그런 움직임의 출발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에 의해 성립된 갑오정권은 10월 11일, 일본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의화군을 우두머리로 한 보병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10월 9일 전봉준의 2차 봉기 후, 오토리는 10월 12일 무쓰 외무대신에게 조선 정부가 ‘동학도 토벌’을 위한 일본군 급파를 요청했다고 전보를 쳤다(강효숙, 2009: 439). 그러나 실제로 조성 정부가 일본군에게 요청을 한 것은 10월 18일이었다. 일본군 제19대대는 10월 28일 파견된 이후, 세 길로 나누어 남하하면서 농민군을 탄압하였다. 서울수비대 독립 후비보병 제18대대 1개 중대도 여기에 가담하였다. 강효숙은 서울 이남 지역에서 농민군 탄압에 참가한 일본군이 15개



출처: 강효숙, 2009, 446.

그림 2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군 진압의 경로

중대 3,371명이었다고 보고 있다(2009: 447). 이외에 원산 수비대도 강원도 일대의 농민군을 탄압하는 데 참여했다.

청의 육군은 평양전투 후 압록강으로 퇴각하였다. 일본군은 10월 25일 압록강변의 호산을 점령했다. 이후 일본군은 11월 6일 금주(金州)를 점령하고, 11월 7일 다렌만(리첸트스워드) 포대를 점령했으며, 11월 21일 뤼순커우(旅順口, 포트 아서)를 점령했다.

바로 이 무렵에 동학농민군은 남·북접이 함께 논산에 모여 공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경군은 서울에서 남하하였고, 일본군은 후비보병 제19대대 병력을 동원하여 공주를 향했다. 이 때 일본군 대대장 미나미(南小四郎) 소좌는 조선 정부가 부여한 경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군 병력에 경군을 분산, 동행시켰다. 교도중대나 통위영 부대를 거느린 선봉장 이규태도 일본군 중대장의 지시하에 있었다(신영우, 2009: 107).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조선정부군 연합군과의 최대 결전인 공주 우금치전투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 전개되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이들을 대적할만한 장비와 군사기술을 가지지 못했다. 농민군은 공주에서 패퇴한 후 급구로 후퇴하여 구미란전투를 치루었지만 대패하고 흩어졌다.

우금치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청의 요새 뤼순커우를 함락했다. 뤼순커우전투에서 중국군은 1,000명이 사망한 반면, 일본군은 270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전사는 18명뿐이었다. 또한 일본군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일본군 함대는 뤼순커우 공격 시 청의 북양함대를 지휘하는 정여창(丁汝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그는 웨이하이웨이(威海衛)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뤼순커우 함락 소식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1895년 1월 초, 농민군은 마지막 격전인 장흥전투를 치렀다. 이것은 전투라기 보다는 일본군의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일본군은 요동반도를 점령한 후 주 공격 방향을 청의 북양함대 사령부가 있는 산둥반도의 웨이하이로 결정하였다. 1895년 1월 18일 요시노, 아키츠시마, 나니와 등 함대가 등주로 전진하고, 주력은 1월 19일 다렌만을 출발하여, 20일부터 23일까지 각각 산둥 해안에 도착하였다. 웨이하이 류궁다오에 있던 정여창 제독은 이 일대에 포대와 요새를 구축하고,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완강하게 저항했다.

2월 11일, 리홍장이 정여창에게 지원군 파견 불가 전보를 보내자 정여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일본군 지휘관 이토 제독에게 항복 의사를 보냈다. 최종적으로 정여창은 며칠 후에 일본군이 북양해군을 접수할 것을 제의한 후 자살했다. 일본군은 웨이하이를 점령한 후 내륙 포대를 파괴하고 일부 수비대만 류궁다오에 남고, 주력 부대는 다렌으로 돌아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다. 특히 일본군은 조선 정부와 관군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청군과 전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을 공격했다. 일본은 조선정부를 청의 영향권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려 했다. 그것이 조선을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 아래에 두는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시모노세키(馬關)조약으로 일본은 대만과 펑호, 요동반도에 대한 권리를 얻고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다. 이 중에서 요동반도에 대한 권리가 3국간섭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조선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899년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그것의 제1조는 다름 아니라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였다.

III. 중국 갑오전쟁박물관의 형성과 전시

1. 류궁다오에서 보는 갑오전쟁

청나라는 1888년, 북양해군을 창설하고 그 본부를 웨이하이에 두었다. 청나라는 유럽, 특히 독일의 군함과 대포를 사들여 북양해군의 주력 함대를 구성했는데, 그 군비의 규모는 당시 아시아의 1위, 세계의 4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 해군은 북양함대, 남양함대, 푸젠(福建)함대, 그리고 광둥(廣東)함대로 구성되었는데, 청일전쟁에는 북양함대만 참가했다. 북양함대는 정원호와 진원호 등 7천 톤급 군함 2척(선원은 각각 330명), 경원호 등 2천 톤급 군함 6척, 초용호 등 1천 톤급 군함 4척, 1천 톤 미만의 군함 9척 등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청해군의 주력이었다. 청은 뤼순과 웨이하이웨이에 요새 항을 보유했다.

중국은 당시의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북양함대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웨이하이 류궁다오의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이다.

중국 정부가 류궁다오의 청일전쟁 유적을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도를 시작한 것은 1977년으로 북양해군제독서(北洋海軍提督署, 속칭 水師衙門)를 산동

성의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다. 1988년 국무원이 이를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고, 1985년 3월 21일 제독서 문물관리소가 박물관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 4월 25일, 제독서 문물관리소가 중국갑오전쟁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1994년 7월, 중일갑오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장쩌민(江澤民)이 박물관 명칭을 휘호로 써서 주었고, 전국 10대 우수 사회교육기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戚俊杰 主編, 1995). 2008년 새로 신관을 만들어 진열관으로 명명하였다.

이 박물관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거나 관련 기관이 존재하던 장소에 세워진 기념유지성(紀念遺址性) 박물관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박물관이 웨이하이의 류궁다오에 있던 북양해군 제독서의 유적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북양해군은 일본 해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그 지휘부가 있던 곳까지 철저히 유린되었으므로, 이 박물관은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치욕의 역사를 전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박물관과 다르다. 이 박물관은 북양해군과 갑오전쟁이 중심 주제로 개관 당시에는 약 1,500건의 소장품이 있었는데, 그 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당시 주력군함 제원함의 부품들도 전시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박물관들은 제국주의의 침략, 특히 일본의 침략과 항일투쟁에 관련된 사건들을 주제로 한 항일박물관 계열, 중국공산당의 투쟁과 승리를 중심으로 한 혁명박물관 계열,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역사박물관 계열로 구분된다. 이 갑오전쟁박물관은 난징의 난징학살기념관, 베이징 노구교 부근의 항일기념관, 심양의 9·18역사박물관과 함께 대표적인 항일박물관이며,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북양해군 제독서와 정여창의 처소(丁汝昌寓所), 수사학당(水師學堂)과 철마두(鐵碼頭), 포대, 전보국(電報局), 전정대(電燈台) 등 해군 군사시설 28개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관 이래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 예컨대, 장쩌민,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후진타오(胡錦濤), 리란칭(李嵐清), 류화칭(劉華清) 등이 현판을 썼으며, 전국우수사회교육기지, 전국 중소학 애국주의교육기지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 지정되어 있다.¹²

¹²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1991년 3월 9일 발표된 장쩌민의 서신으로 촉발되었다. 이것은 “중화

북양해군 제독서는 웨이하이의 중요한 고적의 하나다. 청은 1887년 북양수사를 건립하고, 정여창을 제독으로 임명하였다. 정여창은 1882년 임오군란 시 조선에 파견된 바 있는 군인이었다. 이 장소는 1895년 2월, 정여창이 일본 해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자결한 곳이다. 이 건물을 이용하여 정여창 기념관을 건설하였다. 이 박물관은 개관 이래 15년간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60명 이상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다녀갔다고 밝히고 있다(威俊杰 主編, 1995).

웨이하이에는 갑오전쟁박물관 외에 ‘정원함(定遠艦) 풍경구’가 있다. 이곳은 청일전쟁에서 제원함과 함께 주력함으로 활약했던 정원함을 복원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5층 규모의 대형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정원함은 길이 94.5m, 넓이 18m로 청일전쟁 당시 아시아 1위, 세계 6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군함이었다. 복원된 정원함은 전쟁 당시 일본군 전함으로부터 어뢰를 맞은 흔적을 재현하고 있다. 원래 정원함은 1895년 침몰하였고, 일부 부품을 일본군이 수거했는데, 그것을 일본이 구입하여 후쿠오카 태재부 천만궁에 정원함의 잔해를 모아둔 ‘정원관’을 만들었다.

2. 진열관의 청일전쟁 전시

원래의 박물관이 북양해군의 지휘소와 그 흔적을 보여준다면, 신관은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이 신관의 정식명칭은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진열관’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리창춘(李長春)의 감독 아래 2005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에 개방하였다. 대지 면적은 1만 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8,800평방미터. 지명한 건축설계사 중국과학원 팡일강(彭一剛) 교수가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20세기 중화백년 건축경전(建築經典)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진열관은 갑오전쟁을 그린 650점의 그림과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인민공화국의 성립 과정의 어려움을 인식시키고 민족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국주의는 영웅이나 승리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과 희생과 패배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의 경우 19세기 중반 이후 1945년까지의 근대사를 불평등 조약에 근거한 수치의 역사, 국공내전과 국가 형성의 경험에 근거한 승리의 역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태승(2011)을 참조할 것.

진열관의 입구에는 전시의 핵심 개념으로 갑오전쟁을 나라의 깊은 상처라는 의미의 ‘국상(國傷)’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고, 량치차오(梁啓超)가 쓴 “중국의 1,000년간 지속될 커다란 울분이 갑오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라”는 문구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의 서언에 따르면, 갑오전쟁은 일본이 오랫동안 획책해 온 것이며, 전쟁의 결과가 중화민족에게 심각한 재난을 안겨주었고, 세계의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서언을 비롯하여 전시의 각 항목들은 중국어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는데, 이를 보면 이 진열관이 한국인 청중들을 주요 타깃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비로소 해안 방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군함 도입과 제작, 해군을 창설했다. 서태후가 실권을 장악한 청 조정은 리홍장을 직예 총독 겸 북양대신으로 임명했다. 이때 북양의 방어 체계는 수도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텐진과 요동반도의 뤄순,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에 해군 기지를 두고, 그 주변 도시들에 함대를 배치하며 기지 주변에 포대를 두는 것이었다.

진열관은 일본이 갑오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오랫동안 전쟁을 획책했고, 그 목표는 조선과 중국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867년 메이지유신, 1871년 이와쿠니사절단 파견, 1873년의 정한론 등을 설명하고, 일본이 이때부터 중국 대륙 전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보고, 이를 지도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김옥균의 사진과 함께 1884년의 갑신정변과 이에 뒤이은 텐진조약에서 청과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는 경우 서로 이를 알린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진열관은 청일전쟁의 패배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당시 청의 실권자 서태후는 자신의 별장인 이화원 건설을 위해 재정을 쏟아 부었고, 리홍장은 북양해군 창설 이후 3년간 어떤 추가적인 군비 증강도 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해군 군비를 강화해 전쟁 발발 직전 약 7만 톤의 해군력을 보유했다.

진열관 전시에서는 전쟁이 조선의 동학당 봉기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일본이 전쟁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청나라는 6월 6일부터 7월까지 총 4,165명을 조선에 파병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인천에 7,600여 명의 군사를 상륙시켰다. 진열관은 청일전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성환전투보다 평양전투를 강조하고 있다. 평양전투에 관한 상황을 지도를 곁들여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청군은 총병 좌보귀(左寶貴)의 지휘 하에 평양 북쪽의 모란봉에서 방어를 했다. 그러나 평양전투에서 청군은 대패했다. 9월 15일 밤, 청군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2,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당했다. 지휘관 좌보귀도 전사했다. 그는 산둥 출신의 회족이었다. 이 평양전투에서 고전하는 청나라 군사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다.¹³

평양전투와 함께 청일전쟁의 운명을 가른 전투가 9월 17일의 황해해전이다. 압록강 입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진열관에서는 여기에서 전사한 진경영(陳京瑩)의 편지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는 웨이하이웨이의 수군학당 1회 졸업생으로 경원호의 2등 항해사였다. 또한 이 해전에서 전사한 치원함 함장 등세창(鄭世昌)의 시가 전시되어 있다. 황해해전 후 일본군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 제1군은 압록강 방위선을 돌파하여 청군 주력을 견제하고, 제2군은 화위안커우(花園口)에서 상륙하여 남쪽으로 뤄순기지를 점령하였다. 뒤이어 양군이 회합하여 산해관과 텐진, 베이징을 위협했다고 진열관의 전시에 표현되어 있다.

일본 육군 제1군은 평양을 점령한 이후 평북 지방을 거쳐 압록강을 넘었다. 압록강 지역에서의 전투는 호산장성을 거쳐 내륙 깊숙한 장소로까지 번졌다. 진열관의 전시는 ‘격렬했던 요동반도 전투’를 거쳐 ‘뤄순커우를 향한 총갈’로 이어진다. 이 전투 또한 비교적 상세한 전투 지형도를 통해 재현되어 있다. 뤄순커우가 함락된 후 찾아온 것은 일본군에 의한 대규모의 전쟁 폭력으로, 진열관의 전시에서는 이를 ‘뤄순대도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중국 주민은 2만 명이라고 한다. 요동의 주민들은 일본군에 대한 저항을 펼쳤다. 이를 항쟁의 봉화가 타올랐다고 표현하고 있다. 뤄순에서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중국은 100주년이 되던 1994년 만충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청일전쟁의 마지막 국면은 산둥반도에서의 전투인데, 이를 ‘결전’으로 묘사한다. 이에 따르면, “1985년 1월 일본군은 방향을 바꾸어 산둥반도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그 목적을 북양해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투에서 청군의 최대 약점은 육군과 해군이 서로 고립되어 협력하지 못했고, 또

13 이인직이 1906년 발표한 신소설 『혈의 누』가 이 평양전투에서 흠어진 이산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 청나라의 포대가 미리 점령되어 오히려 이것이 해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산둥반도 기슭 상륙 작전을 통해 류궁다오에 있는 북양해군 근거지를 육로와 해로로 협공할 수 있었다.

웨이하이웨이 전투의 주인공이 정여창이다. 정여창은 고립된 채 끝까지 싸웠고, 결국 자결하였다. 불피첼리는 일본 해군 수장인 이토와 북양함대의 사령관 정여창 간의 마지막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서신 교환 형식이었다.¹⁴ 이토는 정여창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정에 기초하여 편지를 쓴다고 말하면서, “중국군에게 닥친 거듭된 재앙의 근원”을 묻고, “낡은 것과 단절하고 새로운 것에 자신을 적응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정여창은 2월 12일 항복하는 편지를 이토에게 보냈고,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전제 아래 전함과 류궁다오의 요새, 장비를 일본군에게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토는 정여창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머무를 것”을 제안했다. 포로로 삼는다는 뜻이었다. 정여창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월 16일 인수할 것을 제안하고, 12일에 자결하였다.

진열관에는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여창이 남긴 말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죽음을 순국으로 표현했다. 그의 뒤를 이어 유보섬(劉步蟾), 양용림(楊用霖), 장문선(張文宣), 대종건(戴宗燾) 등 고급장교들도 자결하여 순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 해군의 상징인 용기도 류궁다오 상공에서 내려졌다. 류궁다오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된 청의 해군은 3,097명, 육군은 2,040명으로, 총 5,137명이었다. 진원함, 제원함, 평원함, 광병함 등 10개 군함이 나포되었다. 이를 통해 청의 북양해군은 궤멸되었다.

진열관 전시의 결론은 ‘민족의 치욕과 항쟁’이다. “전장에서 계속되는 패배로 하여 청나라 정부는 화해를 구걸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리홍장은 일본과의 평화회담에 나가게 되었다. 굴욕적인 ‘마관조약’의 체결로 하여 중국은 거액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한 외에 타이완, 평후 등 영토를 떼어주고, 통상항구를 개방해야 했다. 이로 해서 중국의 반식민지 상황도 한층 더 심각해졌다.”

¹⁴ 이 서신들은 제노네 불피첼리(유영분 역)의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조선 땅에서 벌어진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 살림, 2009, pp. 451-456.

근대민족국가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는 쉽지만 패배를 기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갑오전쟁박물관은 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처절한 패배의 기억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3. 시모노세키조약과 그 이후에 관한 재현

진열관의 갑오전쟁에 관한 마지막 전시의 제목은 ‘시모노세키에서 함부로 세도를 부린 일본’이다. 여기에는 청일 양측의 협상대표 4인과 회담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또한 이 조약으로 할양된 지역과 통상항구가 지도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모노세키 조약의 경과는 어떠했는가? 중국 정부는 웨이하이전투가 진행되는 도중에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여 1895년 1월 31일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그러나 만주에서는 전투가 3월 초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3월 15일 일본 원정대가 평후제도를 향해 출발하여 23일 점령에 성공하였다. 전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청나라 대표와의 교섭은 일본으로 하여금 보다 책임 있는 사람을 파견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른바 2차 평화사절단으로 3월 19일 청의 전권대신 리홍장이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그 후 한 달간 춘범루(春帆樓, 순반로우)라는 요정에서 ‘평화회담’을 진행하였다. 춘범루는 원래 아미타사의 방장이 있던 장소로, 폐사된 후 안과의사가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여관 겸 요정으로 사용하던 곳을 회의장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이 회담의 주역은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들은 1885년 텐진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은 이들의 위치를 정반대로 바꾸어놓았다.

리홍장이 시모노세키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된 3월 23일 일본의 보병 1개 여단이 대만 서쪽의 평후제도에 상륙했다. 회담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전쟁의 성과물을 챙기기 시작했다. 3월 24일 회담 대표였던 리홍장이 일본인에게 피격당했다. 며칠을 쉬 후 회의가 재개되었다. 4월 1일,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의 강화협정 초안이 제시되었다. 제1항은 조선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과 자치를 명확하게 인정한다. 그에 따라 독립과 자치를 훼손하면서 조선이 중국에 제공하는 공헌 전례의 이행은

향후 전면 중단될 것이다.” 이외에 초안은 총 11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4월 5일 리홍장은 이 초안에 대해 조선 문제, 영토 할양 문제, 배상금 문제, 통상특권 문제 등 4가지 쟁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¹⁵ 리홍장은 조선 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수개월 전 조선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독립을 기꺼이 인정하고 조선의 완전한 중립성 보장을 언급하였고 본 조약에 그 같은 조항을 삽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상호주의에 따라 일본도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배상금 조항에서 중국은 일본이 이번 전쟁의 목적을 조선의 완전 독립 보장이라고 밝혔는데, 청은 1894년 11월 22일 조선의 독립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각국 정부에 선언했으므로, 이후의 전쟁 경비는 배상금 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홍장은 4월 9일 1항을 수정하여, “중국과 일본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과 자치를 확고히 인정하며 조선의 완벽한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 같은 자치를 훼손할 조선 국내 문제에 관한 양국의 간섭이나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 조선에 의한 공헌 전례는 장래 전적으로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4월 10일 이토 히로부미는 리홍장에게 1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조선의 독립은 중국에게만 적용될 뿐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었던 셈이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의도대로 4월 17일 전문 11개 조항의 강화조약, 각 3조 항의 의정서(議政書) 및 별약(別約), 2조 항의 추가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리홍장의 굴욕감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리홍장은 이토 히로부미가 내민 조약의 초안에서 배상금을 조금 깎은 것 이외에는 모두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화협정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시모노세키조약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 외에 대만과 평후를 식민지로 얻고, 뤄순을 포함한 요동반도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일본에게 요동반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주문하였고,¹⁶ 일본은 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¹⁵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노네 불피첼리(유영분 역, 2009)에 실려 있다.

¹⁶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된 뒤 6일이 지난 1895년 4월 23일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대사들은 일본의 외무차관 하야시 다다스(林董)를 방문, 각각 다음의 권고문을 건넸다.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Mikhail Aleksandrovich Hitrovo)의 권고문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이 요동

일본은 1937년 6월,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일청강화회의와 하관 강화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강화회의의 무대가 된 ‘춘범루(春帆樓)’의 인접지에 일청강화기념관을 세웠는데, 1945년 태평양전쟁 때 미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후 다시 재건하였다. 이 기념관은 회담 당시 사용하였던 탁자와 물건들을 복원 전시하고, 또한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등이 쓴 글씨 등도 전시하고 있다. 춘범루의 회담장은 웨이하이에도 재현되어 있고, 시모노세키에도 재현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기념관을 갖고 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가 부끄러운 역사적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갑오전쟁에 관한 중국의 기억의 재구성에서 중요한 특징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한 중국인들, 구체적으로 대만인들의 저항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진열관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대만 할양을 반대한 항일투쟁’과 ‘평후(澎湖) 열도 점령’이다. 대만인들은 일본군에 대항하여 4개월간 100여 차례의 전투를 통해 일본군 3만 2,000명을 사상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전개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준 피해보다 훨씬 큰 것이다.

중국에서 청일전쟁을 설명하면서 대만인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변화된 중국의 대만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상은 대만의 식민지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적극 수용하고 있는 베이징 노구교의 항일기념관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항일 영웅들을 전시하면서 공산당 출신뿐만 아니라 국민당 출신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의 냉전 시기와

반도를 소유하면 청국의 수도를 끊임없이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극동의 평화에 영원한 장애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국 정부에 권고한다. 요동반도를 포기하라.” 프랑스 공사 쥘 아르망(Jules Harmand)의 권고문은 다음과 같았다. “요동반도의 영유는 청국의 수도를 위태롭게 하고,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며, 극동의 평화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프랑스와 일본의 우정을 감안해 해당 반도 소유를 포기하도록 우의로 권고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독일 공사 구트슈미트(Felix von Gudtschmid)의 권고문은 다음과 같았다.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 귀국 정부가 요동 반도에 대한 영구 소유를 단념하도록 독일은 권고합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이 3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을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믿지만, 일본 정부가 명예를 잃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길 바라며, 그 뜻을 전보를 통해 본국 정부에 보내라는 훈령도 받았습니다.”

는 달리 중국의 자신감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진열관의 청일전쟁 전시의 마지막 결론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적 문제다. 이 결론은 ‘천애하처시신주(天涯何處是神州)’로 표현된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중국은 하늘가 어디에 있나’인데, 이것보다는 ‘신이 내려준 땅 중국은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어디로 가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진열관의 전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갑오전쟁에서 패전한 굴욕적인 역사는 ‘낙후되면 곧 당하게 된다’는 도리를 다시 입증했다. 오늘, 중국의 영토와 해양 국토의 안전은 강력한 해안 방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 해상강철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갑오전쟁 전시의 최종 목적이 해양강국 건설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점령했던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는 무사하지 못했다. 일본에 할양되기로 했던 요동반도는 3국간섭에 의해 그대로 청의 영토로 유지되는 대신, 러시아는 1898년 3월 뤄순을 조차했다. 독일은 1897년부터 칭다오청도를 조차했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하였다. 영국은 이에 대응하여 웨이하이를 1898년 7월 10일 점령했다. 웨이하이의 조차지는 1930년까지 유지되었고, 류궁다오는 그보다 10년 더 유지되었다.¹⁷

IV. 맺음말: 국가적 기억을 넘어 동아시아적 지평으로

웨이하이 류궁다오의 갑오전쟁박물관 진열관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동학혁명 기념관의 전시가 너무 지방적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일국사에 갇혀 있다는 점을 깨우쳐준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니 그 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 2001년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기념관의 전시에는 이런 시

¹⁷ 웨이하이 류궁다오에는 ‘영국 조차지 웨이하이웨이 역사박물관’이 있다.

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¹⁸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대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국성이며, 그것이 사건의 명칭에 배어 있다.

나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함께 묶어서 인식하는 시각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894년의 대사건을 새롭게 명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 한 가지 대안은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이다. 강효숙(2009: 456-457)은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이것이 ‘조·청·일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의 일본 측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청·조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민군을 ‘적’으로, 이들과의 싸움을 전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전쟁관련 법률인 ‘일청전쟁 국제법 숲(전)’(1895)의 ‘점령지 인민 처분령’이 중국인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의 농민군 탄압이나 군용 전선 및 군수물자 보급을 방해한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 경험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6·25 사변이라는 부르는 1950년의 전쟁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호명에 따라 이를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좀더 성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여 일어난, 내전이나 양국 간 전쟁이 아닌, 적어도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한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장이 좀더 확대되고, 전쟁의 결과 또한 국가수준을 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세계대전은 아닌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맥락에서 청일전쟁을 다시 바라본다면, 어떠한가? 청일전쟁은 이름처럼 조선과 무관한 양국 간 전쟁인가?

흥미롭게도 이 전쟁은 후일의 총력전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군사력 일부만이 참전하였지만, 그 전장은 한반도와 중국의 육지와 바다에 걸쳐 있고, 이 전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가 식민지화되었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명백히 제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전쟁에서 또한 동학농민군은 정부군과 외국군을 상대로 싸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청일전쟁은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으로 재규정되어야 하고,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은 이 지역전쟁

¹⁸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글의 하나로 원도연의 연구(2007)를 볼 것.

의 두 구성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¹⁹ 동아시아 지역전쟁은 동아시아의 기본 질서를 다투는 것으로, 1894년 동북아시아전쟁은 동아시아가 전통적 중화체제에서 근대적인 일본 중심의 제국체제로 이행하는 계기였다. 이 전쟁을 매듭짓는 시모노세키조약은 그 조인으로부터 57년이 지난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타이베이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57년 전, 청이 일본에 준 배상금도, 센카쿠열도(尖角列島)로 개칭된 다오위다오(釣魚島)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공고화되는 국면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인 1985년, 웨이하이 류궁다오에 갑오전쟁기념관을 세웠다. 이것은 넓게 보면 개혁개방에 따를지도 모르는 국민적 정체성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1982년 발생한 일본 교과서 파동에 대응한 조치였다. 갑오전쟁박물관의 건립은 동아시아라는 지평에서 중국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속하지만, 동아시아 역사 기억 전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에 새롭게 개관한 진열관의 서사는 매우 민족주의적이다. 여기에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짙게 배어 있다. 조어도 또는 센카쿠열도 문제가 고조된 2012년 7월, 중국은 〈1894·갑오대해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개봉했다.²⁰ 이 영화는 웨이하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원함 풍경구에서 촬영한 것으로, 1894년 9월 17일 벌어진 황해해전(해양도 전투)에서 지원함함장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등세창을 주인공으로 한다.

한국인들이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전시를 보면서, 웨이하이 갑오전쟁기념관과 시모노세키 일청강화기념관의 역사관을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역량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역설적

¹⁹ 한국사에서 이런 양상의 전쟁은 더 많이 있다. 16세기 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원하기 위하여 명군이 참전한 임진왜란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를 항왜원조전쟁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이를 문록의 역으로 부르지만, 모두 자기중심적 용어들이다. 전쟁의 실상을 보면, 1592년 동아시아 전쟁 또는 조선전쟁이 좀 더 적절하다.

²⁰ 이 영화는 펑샤오닝(冯小宁) 감독 작품으로 루이(陆毅), 하우(夏雨), 양립신(杨立新), 손해(孙海) 등이 주연배우로 활약했다.

으로 한국에서의 갑오년의 기억의 편향성과 부분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학습 장치다.

투고일: 2014년 4월 27일 | 심사일: 2014년 5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16일

참고문헌

- 강효숙. 2009.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탄압.”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420-46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김태승. 2011. “중국의 애국주의 역사교육과 기억정치: 청일전쟁, 노스텔지어, 홍색관광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현대 전쟁 유적 그리고 평화』, 21-48.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다이동양. 2009. “갑오중일전쟁기간 청 정부의 대일정책.”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248-352.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문병학. 2014. 『녹두의 꿈 - 동학답사자료집』(2014년 4월 26일).
-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서울: 모시는 사람들.
- 박명규. 18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51, 41-74,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 박종근 저, 박영재 역. 1989. 『청일전쟁과 조선: 외침과 저항』. 서울: 일조각.
- 왕현중.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9.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대일 전략과 종속의 심화.”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16-78.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원도연. 200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261-288. 역사문화학회.
- 신영우. 2009. “동학농민군 피살자의 수와 일본군의 학살책임.” 『동학농민혁명 - 청일전쟁 유적지 답사자료집』, 정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여문환. 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파주: 한국학술정보.
- 오비나타 스미오. 2009. “청일전쟁전후 일본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110-17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은정태. 2009. “청일전쟁 전후 조선의 대청정책과 조청관계의 변화.”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80-109.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제노네 볼피첼리 저. 유영분 역. 2009.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조선 땅에서 벌어진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 파주: 살림.
- 조병한. 2006.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재구축과 청일전쟁.”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261-313. 서울: 일조각.
- 조세현. 2013. “1880년대 北洋水師와 朝清關係.” 『동양사학연구』 제124집, 211-254.
- 최석완. 2006.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재구축과 청일전쟁.”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314-347. 서울: 일조각.
- 中塚明 저. 박맹수 역. 2002.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서울: 푸른 역사.
- 威海市檔案局 編. 2011. 『1398~1949: 歲月威海』, 山東畫報出版社.
- 陳悅. 2008. 『碧血春秋-北洋海軍甲午戰史』,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 陳悅. 2012. 『沈沒的甲午』, 南京: 鳳凰出版社.
- 戚其章. 2006. 『走進甲午』,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 戚俊杰 主編. 1995. 『中國甲午戰爭博物館』, 威海: 山東大學出版社.
- 戚俊傑. 1997. 『丁汝昌集』,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 戚俊傑, 郭陽. 2010. 『甲午縱橫』, 濟南: 華文出版社.
- 戚俊傑, 劉玉明. 2006. 『北洋海軍研究』,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 哲夫·杜常君. 2009. 『旅大舊影』, 濟南: 濟南畫報出版社.
- 鴻明. 2012. 『甲午海戰』,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 Armstrong, C.K. et al. 2006. *Korea at the Center: Dynamics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New York: M.E. Sharpe.
- Lone, Stewart. 1994. *Japan's First Modern War: Army and Society in the Conflict with China, 1894-1895*. New York: St. Martin's Press.
- Paine, S.C.M. 2003.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 Power, and Primac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Rethink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t the Museum of the Sino-Japanese War: Conceptualizing the 1894 Northeast Asian War

Keunsik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 as a critical event in Korea's national history, and the representations of the Sino-Japanese War as a critical event in East Asian regional history. Existing interpretations of these events can be divided between the view that treats each event as a separate event on its own, and the view that treats the two events as an inseparable whole. Ye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in Jeongeup, South Korea, and the Museum of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China in Weihai, China, both organize their exhibitions based on the former view,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War Memorial in Korea.

However, as the two events happened around the time of the collapse of the China-centric regional order, they must be understood as two concentric circles of a single regional war mediated by fac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dispute over the international status of Joseon, Joseon's quest for Qing reinforcements, and the right of command exercise by Japan during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s' Army. In this context, the Sino-Japanese war should be better defined as a Northeast Asian War in which Joseon plays an integral part. Seen this way, the exhibi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should also be reorganized around a historical vision that which incorporates the Sino-Japanese War

more actively.

Keywords | Donghak Peasant Revolution, China-Japan War, Northeast Asian War, war museum, visual representation

